

2026.07.20.

VOL.598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미국 NIH All of Us 프로그램,
멀티오믹스 시대 진입에 따른
정밀의료 연구 인프라 재편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미국 NIH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멀티오믹스 시대 진입에 따른 정밀의료 연구 인프라 재편 1

02

무역통상

한국-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합의 및 암센터 건립 협력	5
인도-캐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3차 협상 완료 ... 2026년 타결 목표	5
EU-멕시코 무역협정, 멕시코 의료기기 업계에 유럽 수출 새 활로 개척	5
미국 상원 노인특별위원회, 의약품 공급망의 외국 관여도 분석 의무화 법안 발의	6
중국,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 6월 수출 27% 증가	6
인도-중국, 2026년 상반기 교역액 917억 달러로 증가	6
미국, 무역법 232조 조사 대상을 핵심 광물·의료제품·반도체 등으로 확대	7
아일랜드, 2026년 5월 제약 수출 58.8% 급감으로 상품 수출 29.1% 하락	7
존슨앤드존슨, 2026년 2분기 매출 6.6% 성장 ... 연간 전망 상향 조정	7

03

의료 인공지능

콘코디아대학, 생성형 AI와 물리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항생제 후보 펩타이드 설계법 제시	8
버지니아텍, 알파폴드 3를 능가하는 RNA 3차원 구조 예측 AI 'RNAbpFlow' 개발	8
엔트로픽, 과학자용 AI 워크bench '클로드 사이언스' 베타 출시	9
하이드 헬스, 웨어러블 녹음 장치 '하이드 리모트' 출시로 수직계열화 전략 착수	9
엑스퍼리티, AI 기반 수익주기관리 기업 액디온 헬스케어 인수	10
인터시스템즈, 헬스케어 플랫폼 '인텔리케어'·'트랙케어' EU MDR 클래스 IIa 인증 획득	10
케이야 메디컬, AI 기반 관상동맥 플라크 분석 소프트웨어 '딥베슬 플라크' FDA 510(k) 허가 획득	11
글로벌 제약사,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응해 중국 AI 바이오텍과 라이선싱 거래 확대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네덜란드, 신약 승인 지연과 임상시험 유치 감소 동시 직면	12
노보 노디스크, 위고비 MASH 치료제 영국 승인 획득	12
큐리 바이오-배틀, 신경근 약리학 분야 동물실험 대체 NAMs 기술 상용화 파트너십 체결	13
워하르트, 인도 최초 자체 개발 신항생제 '자이니치' FDA 허가 획득	13
캠게니엄, 커넥티드 의료기기 개발용 사전 인증 인프라 플랫폼 '파운데이션' 출시	14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팀, 심장 질환 재현·의료기기 시험용 소프트 로봇 심장 개발	14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팀,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증상 발현 시점 예측	15
바스프-보타 바이오사이언시스, AI 기반 인체동일 콜라겐 '스킨넥서스 콜라겐' 출시	15

05

의료서비스

튀르키예, 2026년 글로벌 의료관광 순위에서 태국·인도·멕시코·한국 제치고 1위 차지	16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고성장 국면 진입	16
유럽 국가들, 의료와 스파를 결합해 글로벌 최고 웰니스 관광 시스템 구축	17
키즈 메디컬 서비스, 남플로리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통합 전략 제안	17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원격진료 서비스 '버추얼 케어 N.B.'로 전환	18
UAE, 국가 통합 의료 데이터 플랫폼 '리아야티'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 시스템 구축	18
태국·인도, 비자 제도·AI 진단·력셔리 회복 인프라를 앞세워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주도	19
홍콩, 제1회 홍콩 중의학·통합의학 글로벌 서밋 개최해 글로벌 의료 협력 확대	19

06

글로벌 행사

FOCUS 미국 NIH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멀티오믹스 시대 진입에 따른 정밀의료 연구 인프라 재편

1 정밀의료 데이터 인프라의 진화와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규모 확장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유전체·전자건강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26년 6월 30일 정밀의료 연구 프로그램인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의 최신 데이터 릴리스(Data Release) 'CDRv9(Curated Data Repository version 9)*'를 공개하며, 747,000명 이상의 참여자 데이터를 확보한 세계 최대 통합 유전체·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발표함



*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기적으로 갱신·배포하는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정제된 데이터셋 버전 명칭

** 환자의 △진료 △검사 △처방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 체계

- NIH에 따르면 CDRv9에는 535,000건 이상의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 데이터와 약 482,000건의 전자건강기록(EHR)이 연계되어 있어, 유전체 분석의 심도와 임상 데이터의 폭을 동시에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자산으로 평가됨
- *** 생명체의 DNA 전체(약 30억 개의 염기서열)를 한 번에 해독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희귀·다인성 질환 관련 유전 변이를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데 활용됨
- 기존 최대 규모의 정밀의료 참조 데이터베이스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는 약 50만 명 규모의 백인·유럽계 중심 데이터로 구성되어 결과의 인종 및 집단 간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됨
- 반면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은 883,000명 이상의 누적 등록 참여자를 기반으로 △유전 △생활습관 △환경요인 간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정밀의료 분야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대규모·다양성 기반 연구 인프라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참여자 대표성 확보와 정밀의료 데이터 격차 해소

- 정밀의료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에 편중된 데이터로는 임상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연구 설계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언급되어 왔음
- 실제로 기존 유전체 연구는 특정 △인종 △지역 △연령대에 편중된 코호트(Cohort)**** 구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며, 대표성이 낮은 데이터베이스로는 특정 인종군에서만 나타나는 질병 위험 유전 변이 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실제 사례로 제기됨
- **** 특정 집단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질병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역학 연구 방법
-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86%인 645,000명 이상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다인종 △농어촌 거주자 등 기존 생물의학 연구에서 대표성이 낮았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가 미국 전역 50개 주(州)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적 포괄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데이터 공개의 핵심 의의로 평가됨

|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 릴리스(CDRv9) 핵심 지표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참여자 규모	누적 등록 883,000명, 신규 공개 747,000명 이상	정밀의료 연구를 위한 세계 최대 인구 기반 데이터 확보
유전체 데이터	전장유전체분석 535,000건, 유전 변이 13억 개 이상	유전체 심도 측면에서 유례없는 연구 자원 형성
임상 데이터 연계	전자건강기록 482,000건 연계, 전년 대비 22% 증가	유전체-임상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실사용 근거 확대
대표성	소외집단 참여자 645,000명(전체의 86%)	기존 연구의 편향성 해소, 결과 일반화 가능성 제고

[자료] NIH, Healthcare IT News, The Next Web

2 기술 구조: 멀티오믹스 통합과 개방형 연구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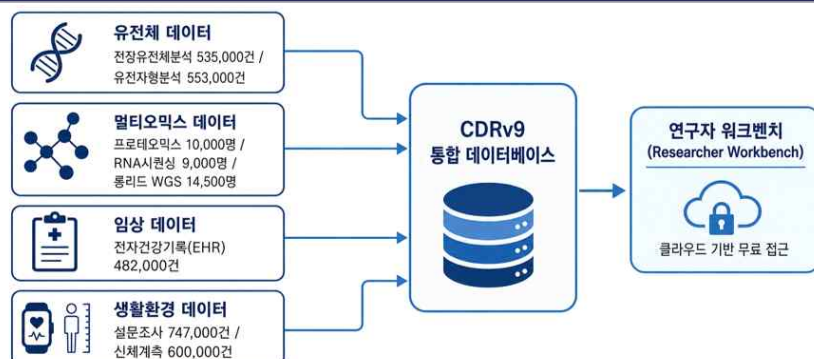
유전체·임상·설문·신체계측 데이터의 통합 구조

- CDRv9는 유전체 데이터뿐 아니라 △전자건강기록(EHR) △설문조사 응답 △신체계측(Physical Measurement)*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결합한 통합형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 데이터 유형에 의존하던 기존 연구 방식과 차별화되는 구조로 평가됨
 - * 개인 신체의 △상태 △크기 △비율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표준치와 비교하거나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초 평가 방법
- 실제로 CDRv9에는 △13억 개 이상의 유전 변이 △553,000건의 유전자형분석(Genotyping) 데이터 △96,000건의 구조적 변이(Structural Variant)** 기록 △600,000건의 신체계측 정보 △747,000건의 설문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체 정보와 생활환경·행동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층적 연구 기반이 마련됨
 - ** ① 유전자형분석: 개인의 특정 유전자 변이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로, 전장유전체분석(WGS)보다 낮은 비용으로 특정 변이를 검출하는 데 활용됨
 - ② 구조적 변이: 유전체에서 50bp(염기쌍) 이상의 큰 크기로 발생하는 DNA 서열의 변화
- 이번 데이터 릴리스에서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는 △참여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과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 경로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상 데이터의 수집 경로 자체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멀티오믹스 시대 진입과 개방형 연구자 워크벤치

- CDRv9는 프로테오믹스(Proteomics)와 RNA 시퀀싱(RNA Sequencing, RNA-seq)*** 데이터를 처음으로 포함하며, 이는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이 유전체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멀티오믹스(Multiomics)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 ① 프로테오믹스: 생명체의 유전자 정보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 전체를 대규모로 분석하는 학문
 - ② RNA 시퀀싱: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을 이용해 특정 세포나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모든 RNA를 분석하는 기법
- 구체적으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는 약 10,000명 △RNA 시퀀싱 데이터는 약 9,000명 △롱리드 전장유전체분석(Long-Read Whole Genome Sequencing, LRS)**** 데이터는 14,500명 이상의 참여자로부터 확보되었으며, NIH는 추가적인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임
 - **** DNA를 짧게 조각 내지 않고 수천~수만 염기쌍(10 kb 이상) 길이 그대로 길게 읽어내는 차세대 유전체 해독 기술
- 등록된 연구자는 클라우드 기반 '연구자 워크벤치(Researcher Workbench)'를 통해 무료로 CDRv9에 접근할 수 있어, 지역 및 소속기관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방 소재 대학 연구자도 주요 연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평가됨
- 이처럼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가 통합된 개방형 대규모 데이터셋은 AI 기반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 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를 지님

|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구조



[자료] NIH, Healthcare IT News

3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이 촉발하는 산업·연구 파급효과

개방형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 생태계의 확장

- NIH에 따르면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는 2016년 프로그램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00편 이상의 동료 심사(Peer Review)* 학술논문 발간에 활용되었으며, 미국 50개 주 및 전 세계 약 23,000명의 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어 단일 국가 프로그램이 형성한 연구자 활용 기반으로는 유례없는 규모로 평가됨

* 연구자가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 검증을 거쳐 발표하는 학술 논문 심사 방식

-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미국 매스 제너럴 브리검 심혈관연구소(Mass General Brigham Heart and Vascular Institute)는 브로드 임상연구소(Broad Clinical Labs) 등과 공동으로 8개 심혈관질환의 유전 위험을 예측하는 통합 다유전자 위험점수(Polygenic Risk Score, PRS)** 검사를 개발함

** 수많은 유전자 변이가 개인에게 미치는 작은 영향력들을 종합하여, 특정 질병에 걸릴 상대적인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유전체 분석 방법

- 해당 검사는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참여자 245,394명의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훈련한 뒤 매스 제너럴 브리검 바이오뱅크(Mass General Brigham Biobank) 53,306명을 대상으로 외부 검증을 완료해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JACC)에 게재됨으로써 대규모 개방 데이터가 실제 임상검사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 또한, 브로드 임상연구소와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가 공동 개발한 저비용 전립선암 유전 위험모델 '피-케어(Prostate CAncer integrated Risk Evaluation, P-CARE)'는 미국 보훈부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illion Veteran Program, MVP)***의 데이터로 개발된 뒤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로 외부 검증을 거쳐 2026년 1월 네이처 캔서(Nature Cancer)에 게재됨

*** 미국 보훈부(VA)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의학 연구 프로젝트로, 재향군인들의 △유전체 △생활 습관 △군복무 경험 △건강 데이터를 통합하여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맞춤형 의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AI 기반 신약재창출과 개방형 접근 구조의 산업적 함의

-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제안한 알츠하이머(Alzheimer) 치료제 재창출 후보 물질을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실사용 임상 데이터로 검증한 연구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심바스타틴(Simvastatin) △로사르탄(Losartan)**** 등이 발병 위험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방형 대규모 데이터셋이 AI 기반 신약재창출 연구의 실증 기반으로도 실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됨

**** ① 메트포르민: 제2형 당뇨병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 경구용 혈당강하제

② 심바스타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쓰이는 스타틴(Statin) 계열 지질강하제

③ 로사르탄: 혈압을 낮추는 데 쓰이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

- 학계에서는 그간 유전체 및 다중오믹스 데이터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재창출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 의료기관 간 데이터 이질성과 제약사·학계 간 폐쇄적 데이터 공유 구조를 지적해 왔으며,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통합 개방 데이터가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됨
-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는 등록 연구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지방 소재 대학 연구자도 주요 연구중심병원과 동일한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대형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었던 기존 바이오뱅크 운영 방식과 차별화되며, 이는 중소 바이오기업 및 스타트업의 AI 기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 개방이 초래하는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

분야	주요 내용	의미
진단·바이오마커 개발	심혈관질환 유전 위험 예측 임상검사 상용화, 전립선암 위험모델(P-CARE) 임상 적용	유전체 기반 사전예측형 진단시장 확대
신약재창출	기존 약물의 신규 적응증(알츠하이머 등) 발굴	신약개발 비용·기간 단축형 R&D 모델 확산
AI·디지털헬스	멀티오믹스·EHR 결합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확대	AI 기반 정밀의료 알고리즘 개발 가속화
연구 형평성·산업 저변	무료 개방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접근성 확보	연구 자원 집중 완화, 신규 참여기업 진입 기회 확대

[자료] JACC, Nature Cancer, medRxiv, Nature, NIH

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재원 구조의 불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은 2016년 제정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근거해 10년간 약 14억 5,000만 달러(한화 2조 2,145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해당 법이 연차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2023년 이후 재원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간소화하여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가속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12월 제정된 미국 법률
- 실제로 관련 재원은 2023년 5억 달러(한화 7,636억 원) 이상에서 2025년 회계연도 약 1억 5,800만 달러(한화 2,413억) 수준까지 71%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참여자 모집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성인 참여자 대상 생체시료** 수집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 축소로 이어짐
 **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의학·과학적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모든 체액 또는 조직
- 치료법에 근거한 해당 재원은 법률상 2026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2027년 회계연도 이후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여부가 프로그램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있음

데이터 보안·국제 표준화 이슈

- 대규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가 통합·개방되는 구조적 특성상 재식별(Re-Identification, Re-ID)*** 위험과 정보 유출 우려가 국가 주도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공통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 익명화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다시 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
- 아울러 국가별로 유전체·임상 데이터 표준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상이해,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개별국가 플랫폼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상호운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 협력 체계 마련이 후속 과제로 주목됨

중장기 전망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 NIH는 프로테오믹스와 RNA 시퀀싱(RNA-seq) 등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연내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고도화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자산은 향후 국제 정밀의료 표준 논의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국 정부도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1단계(2024년~2028년)에서 77만 2,000명을 모집하고 2단계(2029년~2032년)에 100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이에 따라 한국은 △참여자 규모 및 다양성 조기 확보 △범부처 데이터 표준화 △개방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출처] NIH, 2026.06.30.;Healthcare IT News, 2026.07.02.;The Next Web, 2026.07.01.;Nature, 2026.06.03.;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2026.04.29.;Nature Cancer, 2026.01.26.;medRxiv, 2023.07.08.;Annual Reviews, 2026.01.; Nature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 2026.06.03.;NIH, 2025.07.22.;STAT, 2024.09.03.;비즈니스한국, 2026.06.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2.19.;HCI Innovation Group, 2024.12.20.;



한국-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합의 및 암센터 건립 협력

South Korea and Mongolia sign CEPA agreement and cancer center cooperation MOU

- 한국 대통령이 7월 9일~11일 몽골을 방문해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총 21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원칙 합의를 도출하였음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한국 재정경제부와 몽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간 몽골 제2국립암센터(Second National Cancer Center) 건립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AI 기반 진단 시스템 등 혁신 의료 기술 도입 및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함

** 한국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 개발 원조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차관을 제공함

- 이번 협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암 발생·사망률을 보이는 몽골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디지털헬스 기술의 해외 진출 거점을 확대하는 사례로 여겨짐

[Healthcare Asia Magazine, 2026.07.13.;The Diplomat, 2026.07.13.]



인도-캐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3차 협상 완료 ... 2026년 타결 목표

India and Canada conclude third round of CEPA negotiations targeting 2026 conclusion

-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인도와 캐나다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3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양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협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202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교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역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농업 △의약품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500억 달러(한화 76조 3,65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의 주요 캐나다 수출품에 의약품 및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CEPA 타결 시 인도 제약 수출의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의 무역 다변화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The Hindu, 2026.07.12.;The Economic Times, 2026.07.12.]



EU-멕시코 무역협정, 멕시코 의료기기 업계에 유럽 수출 새 활로 개척

EU-Mexico trade deal opens new export corridor for Mexican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7월 8일 찬성 479표 대 반대 119표로 EU-멕시코 현대화 글로벌 협정(Modernized Global Agreement, MGA)을 가결했으며, 협정 발효 시 양국 간 교역품의 99%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멕시코 의료기기 업계가 최대 수혜 분야로 부상할 예정임
- 현재 멕시코 의료기기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 단일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관세 압박과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멕시코 의료기기 업계의 유럽 시장 다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협정이 EU 27개 회원국과 멕시코 상원의 비준을 거쳐 2026년 내 발효될 경우, 멕시코의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에 2030년까지 최대 4억 달러(한화 6,109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Mexico Business News, 2026.07.13.;MD+DI, 2026.07.14.]



미국 상원 노인특별위원회, 의약품 공급망의 외국 관여도 분석 의무화 법안 발의

U.S. Senate Aging Committee introduces bill mandating foreign involvement analysis in drug supply chain

- 미국 상원 노인특별위원회(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가 7월 15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가 미국 제약 제조업 및 바이오의료 기술에 대한 외국의 통제·영향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약 투자 감독 및 책임법(Pharmaceutical Investment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함
- 미국은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및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 상원 노인특별위원회가 관세 정책과 함께 의약품 공급망 내 외국 관여도 공개 입법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도 감축이 미국 의약품 안보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Legis1, 2026.07.13.;Senate Aging Committee, 2026.07.15.]



중국,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 6월 수출 27% 증가

China's exports rise 27% in June on surging AI-driven demand

-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해 4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컴퓨팅 장비 △전기차 수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6월 무역흑자는 1,256억 달러(한화 192조 940억 원)로 전월 1,054억 달러(한화 161조 159억 원) 대비 확대됐으며, 1월~6월 수출이 17.6% 성장해 중국이 올해 2년 연속 1조 달러(한화 1경 5,273조 원) 이상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미국·유럽 등의 관세 장벽 우회를 위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ABC News, 2026.07.14.;CommonWealth Magazine, 2026.07.15.]



인도-중국, 2026년 상반기 교역액 917억 달러로 증가

India-China bilateral trade rises to \$91.72 billion in first half of 2026

-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인도-중국 양국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917억 2,000만 달러(한화 140조 222억 원)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대인도 수출이 21.8% 증가한 794억 1,000만 달러(한화 121조 3,649억 원)에 달해 인도의 무역적자가 671억 달러(한화 102조 5,414억 원)로 확대됨
- 인도의 대중 수출은 37.2% 증가한 123억 1,000만 달러(한화 18조 8,062억 원)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도는 중국 측에 시장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임
- 향후 중국이 인도산 의약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글로벌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The Hindu, 2026.07.14.;Millennium Post, 2026.07.15.]



미국, 무역법 232조 조사 대상을 핵심 광물·의료제품·반도체 등으로 확대

U.S. expands Section 232 tariff investigations to cover critical minerals, medical products and semiconductors

- 미국이 2026년 7월 무역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해 제철용 석탄 수입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존에 진행 중인 △핵심 광물 △폴리실리콘(Polysilicon) △드론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의료물품·로봇·산업기계 분야 조사들이 법정 시한에 근접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관세 부과 등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의약품 분야에서는 4월에 이미 특허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s)에 100% 관세가 부과됐으며, △의료제품 △로봇 △산업기계 분야 조사 결과는 2026년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임
-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동안 총 21건의 무역법 232조 조사를 개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조사 대상이 △에너지 △화학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Bloomberg Global, 2026.07.13.; ChemNet, 2026.07.14.]



아일랜드, 2026년 5월 제약 수출 58.8% 급감으로 상품 수출 29.1% 하락

Ireland's goods exports fall 29.1% in May 2026 as pharmaceutical shipments drop 58.8%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아일랜드 상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9.1% 감소한 165억 유로(한화 28조 7,214억 원)를 기록했으며, 의약품 수출이 약 58.8%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임
-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가 2025년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한 프론트로딩(Frontloading)*의 기저효과로 일시적 정상화라고 평가했으며, 대미 수출이 56% 감소한 반면 영국 수출은 26% 증가해 수출 다변화가 진행 중임

* 관세 부과 전 수입을 앞당겨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

- 아일랜드의 5월 무역흑자가 121억 유로(한화 21조 663억 원)에서 34억 유로(한화 5조 9,183억 원)로 71.9% 급감하면서 제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재확인됨

[RTÉ, 2026.07.15.; Priya Life Science, 2026.07.15.]



존슨앤드존슨, 2026년 2분기 매출 6.6% 성장 ... 연간 전망 상향 조정

Johnson & Johnson reports 6.6% sales growth in Q2 2026 and raises full-year guidance

- 미국 의료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2026년 2분기 매출 253억 1,000만 달러(한화 38조 6,998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으며, 연간 매출 전망을 1,008억 달러~1,014억 달러(한화 154조 2,054억 원~155조 0,234억 원)로 상향 조정함
- 혁신의약품(Innovative Medicine) 부문이 면역질환 치료제 트렘피어(Tremfya) 매출 72.5% 급증과 암 치료제 다잘렉스(Darzalex) 호조에 힘입어 7.8% 성장을 이끌었으나, 의료기기 부문은 심장펌프(Heart Pumps) 임펠라(Impella) 수요 감소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4.5% 성장에 그침
- 약가 협정에 따른 가격 압박 속에서도 대형 제약사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이번 실적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Pipeline)을 보유한 대형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 제약사 간 관세 대응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US News, 2026.07.15.; Reuters, 2026.07.15.]

01 콘코디아대학, 생성형 AI와 물리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항생제 후보 펩타이드 설계법 제시

- 캐나다 콘코디아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연구팀이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Physics-Based Simulation)*을 결합해 신규 항생제 후보 펩타이드(Peptide)**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설계법을 제시함



* 컴퓨터가 실제 물리법칙을 모사해 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기법

**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짧은 단백질로, 인슐린(Insulin)과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 등이 대표적 사례임

- 과학계는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에는 평균 10년과 10억 달러(한화 1조 5,27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2017년 이후 개발된 신규 항생제 13종 중 10종이 이미 특정 세균에 대한 효과를 잃은 상황임
- 연구팀은 항생제 개발의 출발점으로 펩타이드를 선정하고, 신규 분자를 대량으로 제안하는 생성기(Generator)***와 다음 검증 대상을 추천하는 추천기(Recommender)****로 구성된 AI 모델을 마련함

*** 수백만 개의 신규 분자 설계를 빠르게 제안하는 AI 모델

**** 생성기 결과 다음으로 검증할 후보를 선정하는 AI 모델

- 연구팀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펩타이드가 세포막 주변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분석하여, 세균 세포막을 파괴하는 항균 활성과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 여부를 사전에 선별함
- 이번 설계법은 AI 후보물질을 실험 전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검증하는 사례로, 항생제 내성 위기에 대응할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주목됨

[The Conversation, 2026.07.02.:Business Day, 2026.07.06.]

02 버지니아텍, 알파폴드 3를 능가하는 RNA 3차원 구조 예측 AI 'RNAbpFlow' 개발

- 미국 버지니아텍(Virginia Tech) 연구팀이 적은 데이터로도 미국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알파폴드 3(AlphaFold 3)*를 능가하는 RNA 3차원 구조 예측 AI 모델 'RNAbpFlow**'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에 6월 30일 발표함

*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생체분자 구조 예측 AI 모델로, 단백질-RNA 등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함

** 유전자 서열 데이터베이스 없이 염기쌍 정보만으로 RNA의 3차원 구조를 생성하는 AI 모델

- 커뮤니티 성능 평가에서 알파폴드 3는 14개 RNA 표적 중 8개를 정확히 예측한 반면, RNAbpFlow는 12개에 대해 정확한 구조를 예측해 더 높은 성능을 보임
- 또한, 다수의 유사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플로우 매칭(Flow Matching)*** 기법을 활용해 RNA 서열과 염기쌍 정보만으로 완전한 원자 단위 3차원 구조를 구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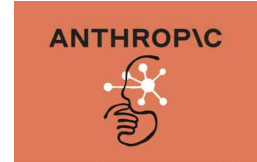
*** 무작위 값에서 시작해 점차 원하는 구조에 가까워지도록 다듬어가는 생성형 AI 기법

- 연구팀은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승인한 리스디플람(Risdiplam)처럼 RNA의 특정 구조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이 있으나, RNA는 구조가 유동적이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단백질보다 부족해 구조 예측 자체가 신약 개발의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함
- 다만, 크고 복잡한 RNA의 경우 알파폴드 3처럼 여러 생물종의 유사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기존 도구가 여전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RNAbpFlow는 데이터가 부족한 사례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RNAbpFlow 개발은 데이터가 부족한 RNA에서도 구조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신약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VT News, 2026.06.30.:Phvs.ora, 2026.06.30.]

03 엔트로픽, 과학자용 AI 워크벤치 ‘클로드 사이언스’ 베타 출시

-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이 6월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과학자용 AI 워크벤치(AI Workbench)* ‘클로드 사이언스(Claude Science)’를 베타(Beta)로 출시하고, 소외질환(Neglected Disease)** 치료제를 발굴하는 자체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도 착수함



* △문헌 조사 △코드 실행 △데이터 분석 등 연구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통합 작업 도구

** 환자 수가 적거나 상업적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질환

- 클로드 사이언스는 기존 클로드(Claude) 모델을 기반으로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구조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60여 개의 전용 스킬과 커넥터(Connector)를 제공하며, 유니프롯(UniProt)*** 및 단백질 정보 은행(Protein Data Bank, PDB)**** 등 주요 생물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됨

***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구축 및 관리하는 단백질 서열·기능 정보 데이터베이스

**** 세계 각국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단백질 3차원 구조 정보 데이터베이스

- 또한, ①전체 작업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에이전트(Coordinator Agent)와 ②분야별 전문 에이전트 인용 및 계산 오류를 점검하는 리뷰어 에이전트(Reviewer Agent)로 구성되어 연구 결과의 재현성과 근거 추적을 지원함
- 엔트로픽은 시연 과정에서 클로드 사이언스가 1시간 이내에 100건의 희귀 유전질환을 분석해 32개의 계산 스크리닝 후보물질을 도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임상적 근거가 아닌 초기 스크리닝 결과로 후속 실험 검증이 필요한 단계임
- 출시 행사에는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프(Bristol Myers Squibb, BMS)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 △미국 바이오텍(Biotech) 제넨텍(Genentech) CEO들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는 엔트로픽이 제약업계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줌

[CNBC, 2026.06.30.;Let's Data Science, 2026.07.05.]

04 하이드 헬스, 웨어러블 녹음 장치 ‘하이드 리모트’ 출시로 수직계열화 전략 착수

- 호주 헬스케어 AI 기업 하이드 헬스(Heidi Health)가 3월 23일 첫 하드웨어 기기인 웨어러블(Wearable) 녹음 장치 ‘하이드 리모트(Heidi Remote)’를 출시했으며, 소프트웨어에 이어 진료 현장의 기기와 데이터 처리까지 직접 확보하는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전략에 착수함

*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없이도 진료 상담을 안정적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설계된 21g 무게의 착용형 기기

** 한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까지 여러 단계를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방식

- 하이드 리모트는 진료실에서 상담 내용을 녹음해 △필사록 △진료 기록 △의뢰서 등 후속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며, 하이드 헬스 CEO는 스마트폰이 AI 기반 진료 지원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
- 하이드 헬스는 문서 작성 기능에 이어 최신 임상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에비던스(Evidence)***’까지 하드웨어로 확장하며, 녹음 및 추론 등 처리 과정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수행하는 엣지(Edge) 방식으로 전환해 환자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 영국 헬스테크(Healthtech) 기업 오토메디카(AutoMedica)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임상 연구 검색 기능

- 또한, △116개국에서 11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 △주간 200만 건 이상의 진료 상담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1억 달러(한화 1,527억 원)에 육박함
- 영국 AI 보안 기업 마인드가드 AI(Mindgard AI)는 하이드 헬스 시스템이 프롬프트 조작을 통해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하이드 헬스는 환자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음성 녹음도 저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하드웨어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전략의 신뢰성 확보에 나섬

[Heidi Health, 2026.06.29.;Ascendants, 2026.07.09.]

05 엑스퍼리티, AI 기반 수익주기관리 기업 엑디온 헬스케어 인수

- 미국 온디맨드(On-Demand)* 헬스케어 기술 기업 엑스퍼리티(Experity)가 미국 AI 기반 수익주기관리 (Revenue Cycle Management, RCM)** 기업 엑디온 헬스케어(Exdion Healthcare)를 인수함

* 사전 예약 없이 환자가 필요할 때 바로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형태

** △진료 △청구 △수납까지 의료기관의 재무 흐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

- 엑디온 헬스케어의 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과 도메인 특화 데이터 워크플로(Workflow)를 결합해 환자 방문 건의 대부분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함
- 엑스퍼리티 CEO는 이번 인수가 △진료 △운영 △재무 전 과정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자사의 'AI 운영체제(AI Operating System)***'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함

*** 헬스케어 사업의 △임상 △운영 △재무 기능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개념

- 또한, 두 회사의 결합으로 기존 고객사가 △청구 거절률 86% 감소 △코딩 정확도 개선 △상환 처리 속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함
- 엑스퍼리티 수익주기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이번 인수로 두 회사의 제품을 통합해 진료 기록을 청구서에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정당한 상환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고객사의 전체 매출이 최대 8%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힘
- 이번 인수는 미국 즉시진료(Urgent Care)**** 시장 절반 가까이를 점유한 엑스퍼리티가 AI 기반 재무관리 역량까지 직접 확보해, 온디맨드 헬스케어 AI 운영체제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려는 시도로 여겨짐

****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당일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미국식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

[Fierce Healthcare, 2026.07.01.;Experity, 2026.07.01.]

06 인터시스템즈, 헬스케어 플랫폼 '인텔리케어'·'트랙케어' EU MDR 클래스 IIa 인증 획득

- 미국 데이터 기술 기업 인터시스템즈(InterSystems)가 헬스케어 플랫폼 '인텔리케어(IntelliCare)'와 '트랙케어(TrakCare)' 모두에 대해 EU 의료기기규정 (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클래스 IIa(Class IIa)* 인증을 획득함



*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나눈 등급 중 하나로, 생명유지 기기보다는 낮고 단순 의료용품보다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등급

- 인텔리케어는 AI 기능을 플랫폼 데이터 계층 자체에 내재한 AI 네이티브 전자건강기록(AI-Native Electronic Health Record, AI-Native EHR)으로, 이러한 완전 통합형 전자건강기록이 EU MDR 클래스 IIa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환자 요약 정보를 즉시 제공하며 △AI 기반 진료 기록 작성 △대화형 상담 △임상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 방식의 지능형 워크플로까지 지원함
- ** AI가 자동으로 처리한 결과를 사람이 최종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 인텔리케어와 트랙케어는 모두 진료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분류돼 이번 인증을 함께 획득했으며, 인텔리케어는 세계 주요 의료기관에서 검증된 트랙케어의 상호운용성 기반 위에 AI 기능을 내재해 구축됨
- 이번 인증 획득은 AI가 임상 소프트웨어의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헬스케어 AI 전반의 신뢰성과 규제 대응력을 검증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InterSystems, 2026.05.19.;Health Services Daily, 2026.07.01.]

07 케야 메디컬, AI 기반 관상동맥 플라크 분석 소프트웨어 ‘딥베슬 플라크’ FDA 510(k) 허가 획득

- 중국 AI 의료기기 기업 케야 메디컬(Keya Medical)이 개발한 AI 기반 관상동맥 플라크(Plaque) 분석 소프트웨어 ‘딥베슬 플라크(DeepVessel Plaqu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함



* 기존 승인된 유사 의료기기와 동등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면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FDA의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 딥베슬 플라크는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CTA) 영상에서 관상동맥과 혈관벽을 자동 분석해 △플라크 부피 △협착 중증도 △위험도 등급(CAD-RADS)**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며,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됨

**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서 협착 정도와 위험도를 표준화된 등급으로 분류하는 체계

- 또한, 미국 임상시험에서 플라크 부피 측정값은 전문 판독의와 0.976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험도 등급 분류에서도 전문가 판독과 상당한 일치도를 나타냄

- 케야 메디컬은 2022년에도 관상동맥 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을 CT 영상으로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딥베슬 FFR(DeepVessel FFR)’로 FDA 허가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허가로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 관상동맥의 구조적 평가와 기능적 평가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됨

*** 관상동맥의 특정 부위 앞뒤 혈압 차이를 측정해 협착이 실제로 혈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평가하는 지표

- 임상시험을 이끈 미국 런드퀴스트연구소(Lundquist Institute) 소속 전문의는 딥베슬 플라크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더 정밀하게 분류해 예방 치료 적용을 도울 것이라고 평가함
- 이번 허가 획득은 AI 기반 심장영상 진단이 관상동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AuntMinnie, 2026.06.29.;Cardiovascular Business, 2026.07.02.]

08 글로벌 제약사,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응해 중국 AI 바이오텍과 라이선싱 거래 확대

- 영국 금융그룹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응해 중국 AI 바이오텍(Biotech)과의 라이선싱(Licensing)* 계약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6년 1월~5월 기준 중국 바이오텍들이 체결한 라이선싱 거래 가치 총액은 750억 달러(한화 114조 5,475억 원)에 달해 2020년 이전 실적이 전무했던 것과 대비됨

* 한 기업이 보유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특정 지역 개발·판매 권리를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계약

- 2026년 1월~5월 중국 바이오텍들의 총 라이선싱 거래 건수는 169건으로 총액 930억 달러(한화 142조 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급증한 수치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중국 AI 신약 개발 기업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 사례로는 중국 AI 기반 신약 설계 기업 메티스 테크바이오(Metis TechBio)가 미국 바이오텍 블루바드 바이오(Boulevard Bio)와 최대 16억 달러(한화 2조 4,436억 원) 규모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블루바드 바이오는 AI 기반 항암 후보물질 ‘MTS-128’의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음

-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텍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라이선싱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 절벽(Patent Cliff)** 앞에서 중국 AI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을 핵심 대안으로 삼고 있음

** 주력 의약품의 특허가 한꺼번에 만료되어 복제약 경쟁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

- 중국 AI 바이오텍과 글로벌 제약사 간 라이선싱 거래의 증가는 AI 기반 신약 개발이 제약업계의 파이프라인 공백을 메우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09 네덜란드, 신약 승인 지연과 임상시험 유치 감소 동시 직면

- 네덜란드 바이오텍(Biotech) 협회 홀란드바이오(Hollandbio) CEO는 네덜란드가 신약 접근성과 임상시험 유치 경쟁력에서 동시에 뒤처지고 있다며, 두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함
- 네덜란드 일간지 알헤메인 다흐블라트(Algemeen Dagblad, AD)에 따르면 승인 대기 중인 치료제 및 의약품 51종 가운데 48종은 이미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개발 단계에 오른 뒤 승인까지 평균 665일이 걸림
- 독일은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승인 직후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이후 최대 6개월 내 가격 협상을 마치는 반면, 네덜란드는 기존 치료제 대비 가치를 재검토하고 가격 협상까지 마친 뒤에야 도입을 허용해 시차가 벌어짐
- 유럽제약산업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의 신약 대기지수(Waiting to Access Innovative Therapies Indicator, WAIT Indicator)*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신약 도입까지 평균 493일이 걸림
- * 유럽 각국에서 EMA 승인 이후 신약이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비교하는 지표
- 또한, 홀란드바이오 CEO는 네덜란드가 표준 치료제조차 충분히 급여화하지 않아 새 치료제와 비교할 대조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임상시험 유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그 사이 중국의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네덜란드의 상황은 신약 승인 및 급여 지연이 임상시험 유치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EU 차원의 규제 일원화와 급여 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NL Times, 2026.06.10.;Euractiv, 2026.07.01.]

10 노보 노디스크, 위고비 MASH 치료제 영국 승인 획득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주사제 위고비(Wegovy)가 영국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으로부터 중등도 이상의 간 섬유화(Liver Fibrosis)를 동반한 성인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etabolic Associated Steatohepatitis, MASH)* 치료제 승인을 획득함
- * △비만 △2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과 연관되어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만성 간 질환
- 치료 용량은 주 1회 0.25mg부터 시작해 4주마다 단계적으로 늘려 주 1회 2.4mg에 도달하며, 비만 환자(체질량지수 30 이상)는 2.4mg을 4주 이상 유지한 뒤 주 1회 7.2mg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음
- MHRA는 이번 승인을 조건부 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로 부여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MASH 성인 대상 임상시험의 추가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해 전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 추가적인 확증 근거가 필요하나 미충족 의료 수요와 기존 데이터의 긍정적 평가를 근거로 조건부로 먼저 허가하는 제도
- 다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는 현재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임상·비용 효과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이번 승인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비만과 당뇨를 넘어 대사 간 질환 치료 분야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마글루타이드의 치료 잠재력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GOV.UK, 2026.07.03.;The Pharma Letter, 2026.07.03.]

11 큐리 바이오-배틀, 신경근 약리학 분야 동물실험 대체 NAMs 기술 상용화 파트너십 체결

- 미국 바이오텍(Biotech) 큐리 바이오(Curi Bio)와 미국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배틀(Battelle)이 동물실험을 대체할 신경근 약리학 분야 신규 접근법(New Approach Methods, NAMs)*을 상용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신경근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 NMJ)** 분석 기술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함



* 동물 실험을 ①대체 ②축소 ③개선하는 원칙에 기반한 인간 세포 및 조직 모델 기반 실험 방법론

** 운동 신경과 근육 세포가 만나는 부위로, 신경 신호가 근육 수축으로 전환되는 핵심 생리학적 접합부

- 파트너십의 핵심은 큐리 바이오의 3D 인체 조직 모델 플랫폼 ‘만타레이™(Mantarray™)***’와 배틀의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기반 인프라·규제 전문성을 결합해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BoNT)***** 역가 시험을 포함한 신경근 약물 개발 분야에 인간 관련 세포 기반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임

*** 인간의 △심장 △근육 △신경근접합부 조직의 수축 기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큐리 바이오의 플랫폼

****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 실험실 운영 규범

***** 보툴리눔균이 만드는 신경독소로, 근육 경직·과민성 방광 등 치료제로 쓰이며 역가 시험으로 안전성을 검증함

- 큐리 바이오는 체세포를 역분화해 만든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기반 3D 조직 모델을 제공하며, 배틀은 이를 글로벌 의약품·의료대응제제(Medical Countermeasure, MCM) 개발 파이프라인에 적용하는 확장 역할을 맡음
- 이번 파트너십은 인간 세포 기반 기술이 실질적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전환점으로, NAMs 기반 약물 개발이 글로벌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는 흐름을 보여줌

[Business Wire, 2026.03.20.:Med Device Online, 2026.07.01.]

12 워하르트, 인도 최초 자체 개발 신항생제 ‘자이니치’ FDA 허가 획득

- 인도 제약사 워하르트(Wockhardt)가 독자 개발한 신규 항생제 ‘자이니치(Zaynich)’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 cUTI)*과 신우신염(Pyelonephritis)**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인도 제약사가 독자 개발해 FDA 허가를 받은 첫 신물질(New Chemical Entity, NCE)***으로 기록됨

* △구조적 이상 △면역 저하 △내성균 감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치료가 어려운 요로감염

** 신장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요로감염의 가장 심각한 형태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가진 신약 후보물질로, 기존 의약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분자

- 자이니치는 4세대 세팔로스포린계(Cephalosporin) 항생제 세페핌(Cefepime)과 워하르트가 독자 개발한 신규 물질 지데박탐(Zidebactam)을 결합한 복합 제제로,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하는 동시에 내성 기전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으로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 그람 음성균(Gram-Negative Bacteria)을 표적으로 함

****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으로, 치료 옵션이 극도로 제한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유발함

- 또한, 임상시험에서 △대장균(Escherichia coli)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등 치료가 어려운 균주에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메로페넴(Meropenem) 대비 높은 완치율을 달성했음
- 워하르트는 자이니치 개발에 약 29년을 투자했으며, FDA 허가 획득은 인도 제약업계가 저가 제네릭의약품 제조를 넘어 신약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이정표로 평가됨
- 이번 허가는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이 전 세계적 위기로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전의 항생제 공급 공백을 메우는 사례로, 인도의 제약 연구·혁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높이고 신약 개발 투자 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13 캄게니엄, 커넥티드 의료기기 개발용 사전 인증 인프라 플랫폼 ‘파운데이션’ 출시

- 영국 의료기기 인프라 기업 캄게니엄(Camgenium)이 커넥티드 의료기기(Connected Medical Device)* 제조사를 위한 사전 인증 통합 개발 인프라 플랫폼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출시했으며, ①펌웨어(Firmware)** ②클라우드 ③규제 준수 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의료기기 제조사가 규제 인프라 구축 대신 임상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인터넷 및 블루투스 등 통신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및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의료기기

**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반도체 칩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

Camgenium

- 파운데이션의 핵심 모듈인 파운데이션 코어(Foundation Core)는 국제 표준 IEC 62304***를 준수하며, △보안 부팅(Secure Boot) △암호화 무선 업데이트 △감사 등급 기록 기능을 기본 탑재함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과정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국제 표준

- 파운데이션 클라우드(Foundation Cloud)는 캄게니엄이 영국 및 미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 등급 클라우드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데이터 보안 도구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등 주요 규제를 준수함
- 파운데이션 리포팅(Foundation Reporting)은 △기기 무결성 △위험 통제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 등 12개 범주의 규제 보고서를 실시간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며, 캠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공학부에서 6년째 의료기기 개발 실습에 활용되고 있음
- 이번 출시는 규제 준수 인프라 구축이 커넥티드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전 인증 플랫폼이 개발 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됨

[SCI AD, 2026.06.17.:Med-Tech Insights, 2026.07.01.]

14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팀, 심장 질환 재현·의료기기 시험용 소프트 로봇 심장 개발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의공학부 연구팀이 △인공 판막 △유두근(Papillary Muscle)* △건삭(Chordae Tendineae)**을 포함한 인체 좌심(Left Heart) 구조를 완전히 재현한 소프트 로봇 심장(Soft Robotic Heart)을 개발함

* 심장 내벽에서 승모판(Mitral Valve)을 지지하는 근육 구조물로, 판막의 정상적인 개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유두근과 판막 첨판을 연결하는 힘줄 구조로, 판막이 역방향으로 뒤집히는 것을 방지함

- 소프트 로봇 심장은 실리콘 막으로 내부 심실을 구성하고 수압으로 작동하는 인공 근육 섬유가 인체 심근의 다층 구조를 모방해 수축·회전 운동을 재현하며, 유두근 장력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승모판 탈출증(Mitral Valve Prolapse) △승모판 역류증(Mitral Valve Regurgitation)*** 등 실제 판막 질환 상태를 정밀하게 구현함

***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방향으로 흐르는 상태로, 심부전(Heart Failure)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심장 질환

- 연구팀은 △초음파 △압력 △혈류 검증에서 실제 심장의 운동 패턴과 심부전 중 가장 이해가 부족한 유형인 박출률 보존 심부전(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HFpEF)****까지 재현함

****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능력은 유지되지만 이완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심부전 유형으로, 전체 심부전의 약 50%를 차지하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임

- 이번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임상 데이터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소프트 로봇 기술이 기존 실험 모델을 대체할 차세대 심장 연구·의료기기 시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짐

[UNSW, 2026.07.01.:Australian Manufacturing, 2026.07.02.]

15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팀,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증상 발현 시점 예측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지원을 받은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연구팀이 혈액 내 원형 RNA(Circular Ribonucleic Acid, circRNA)* 34종이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증상 발현 2년~4년 전부터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게재됨

* 선형이 아닌 원형으로 연결된 RNA 분자로, 뇌의 최근 활동을 반영하며 단백질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님

- 연구팀은 복수의 독립 코호트(Cohort)에서 1,200명 이상의 혈액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circRNA 34종을 발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혈액 바이오마커(Biomarker) 'pTau217**' 모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츠하이머 병리를 식별함

** 혈액·뇌척수액 등에서 측정되는 생물학적 지표로, 질병의 △존재 △진행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아밀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 축적이 시작된 후 수십 년 전부터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증상 발현 시점 예측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증상 발현 시점 예측에서는 circRNA 모델이 pTau217 모델을 크게 앞서, 혈중 circRNA 수치가 높은 환자군의 알츠하이머 진행 위험이 약 3배 높게 나타남
- circRNA 바이오마커는 기존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로 pTau217 수치가 정상화된 뒤에도 전반적인 질병의 진행 상태를 계속 반영할 수 있어, 새로운 치료제의 임상시험 환자 선별과 치료 반응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이번 연구는 아직 증상이 없지만 향후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사람을 조기에 식별해 치료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정밀 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주목됨



[NIH, 2026.07.01.:NewsNation, 2026.07.07.]

16 바스프-보타 바이오사이언시스, AI 기반 인체동일 콜라겐 '스킨넥서스 콜라겐' 출시

-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와 중국 AI 바이오제조 기업 보타 바이오사이언시스(Bota Biosciences)가 공동 개발한 재조합 콜라겐 III(Collagen III)* 성분 '스킨넥서스 콜라겐(SkinNexus™ Collag3n)'을 화장품 원료 시장에 출시함

*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 유형 중 하나로, 피부의 탄력과 유연성 유지에 관여함

- 이 성분은 효모 발효로 생산되는 비건(Vegan) 재조합 단백질로, 인체 콜라겐과 아미노산 서열이 100% 동일하며 보타 바이오사이언시스의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와 바스프의 화장품 활성 성분 기술을 결합해 개발됨

** 물리적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으로, 로봇 등과 결합해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함

*** △균주 개발 △공정 설계 △양산까지 생물학적 소재의 상용화를 자동화된 시설에서 수행하는 생산 기반

- 양사는 2,000종 이상의 콜라겐 조각을 스크리닝하고 후보 평가와 산업적 양산 가능성 검증을 동시에 진행해 개발과 생산 단계를 통합했으며, 3차원 피부 모델 실험에서 콜라겐 I·III·V의 생성을 각각 48%·82%·71% 늘려 전반적인 콜라겐 항상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53세~7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성분은 4주 만에 피부 처짐과 주름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10배 높은 농도로 사용된 기존 대조 제품보다도 우수한 효능이 확인됨
- 이번 출시는 AI 기반 바이오제조 기술이 화장품 원료 개발의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높이는 사례로, 인체동일 성분을 활용한 스킨케어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BASF, 2026.06.30.:Newswire Today, 2026.06.30.]

17 튀르키예, 2026년 글로벌 의료관광 순위에서 태국·인도·멕시코·한국 제치고 1위 차지

- 튀르키예가 여행전문매체 트래블앤드투어월드(Travel And Tour World, TTW)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의료관광 순위에서 △태국 △멕시코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을 앞지르며 1위를 차지함
- 이번 순위는 △저렴한 치료 비용 △글로벌 표준 인증 병원 △첨단 의료 기술 △신속한 전문 진료 접근성을 보유한 국가로 외국인 환자가 이동하는 흐름을 반영함
- 튀르키예는 특히 △미용 시술 △치과 치료 △모발 이식 △안과 △정형외과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과 호텔 및 개인 병원 등 회복 중심 인프라를 보유한 점이 1위 요인으로 언급됨
- 의료관광 분야는 정밀 수술뿐만 아니라 △웰니스 회복 △미용 시술 △치과 치료 △재활 치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임
- 순위는 치료 비용 외에도 △의료 기술 △병원 인프라 △의료진 역량 △환자 회복 환경 등 전반적인 환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었으며, 2위 태국, 3위 인도, 4위 멕시코, 5위 대한민국, 6위 말레이시아, 7위 코스타리카, 8위 싱가포르, 9위 아랍에미리트(UAE), 10위 콜롬비아 순임
- 그리고 선진 의료 시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질 높은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The Indian Express, 2026.07.03.;Travel And Tour World, 2026.07.04.]

18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고성장 국면 진입

-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은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이 △고령화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증가 △민간 부문 확장 △디지털헬스 도입 가속화에 힘입어 2030년까지 약 12% 성장하는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부문 책임자는 의료 산업이 2022년 740억 링깃(한화 27조 7,818억 원)에서 2029년 1,580억 링깃(한화 59조 3,179억 원) 규모로 연평균 11.4%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 말레이시아는 2030년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 2044년에는 21%에 이르러 고령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만성질환 관리 및 장기요양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이 말레이시아 의료 시스템의 주요 의료 부담으로 지목되며, 해당 질환으로 인한 연간 비용은 642억 링깃(한화 24조 1,626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4.2%에 달함
- 약 290개 민간병원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민간 의료 부문은 보험 가입률 상승과 중산층 수요 증가 요인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의료관광객 160만 명을 유치해 24억 링깃(한화 9,0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
- 말레이시아 사립병원협회(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Malaysia, APHM)는 일차진료 의뢰 체계가 미흡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의료비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치료 비용 인상이 아닌 환자들의 병원 이용량 증가라고 지적함

FROST & SULLIVAN

[New Straits Times. 2026.07.03.;CodeBlue. 2026.07.14.]

19 유럽 국가들, 의료와 스파를 결합해 글로벌 최고 웰니스 관광 시스템 구축

-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북유럽 국가 등 유럽 각국이 자국 의료 시스템과 오랜 전통적인 스파(Spa) 문화를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웰니스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음
- 스위스는 첨단 의료 클리닉과 알프스(Alps)의 청정 자연환경을 결합해 △진단 △재활 △예방 치료를 하나로 통합한 프리미엄 의료 웰니스 모델로 유럽 웰니스 관광을 선도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스파 치료를 의료 처방과 연계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쿠어(Kur)*’ 제도를 국가 보건 정책의 일부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유럽 최대 규모의 메디컬 스파 인프라를 구축함
- *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는 의료 및 자연요법 기반의 국가 공인 요양 및 치료 제도
-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시대 온천 전통을 현대적 럭셔리 웰니스 브랜드와 접목해 재생 및 치유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로 웰니스 관광을 주도함
- ** 바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Thalassa'와 치료를 의미하는 'Therapy'의 합성어로, △해수 △머드 △해조류 △해양 기후 등 바다의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요법
-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지열 온천과 사우나 문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유법을 활용해 장수와 정신건강 회복에 특화된 웰니스 모델로 차별화를 추구함
- 이러한 흐름은 2026년 세계 50대 웰니스 관광지 순위에도 반영되며, 웰니스 관광이 단순한 여행 트렌드를 벗어나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Travel And Tour World, 2026.07.02.;Travel And Tour World, 2026.07.03.]

20 키즈 메디컬 서비스, 남플로리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미국 소아병원 운영기관 키즈 메디컬 서비스(KIDZ Medical Services) 대표는 남플로리다(South Florida)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간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미국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4년 87억 4,000만 달러(한화 13조 3,484억 원)에서 2033년 265억 8,000만 달러(한화 40조 5,949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플로리다가 주요 의료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이 각자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 △임상 혁신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모델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남플로리다는 △남플로리다 최대 비영리 의료기관인 뱀티스트 헬스(Baptist Health) △브라워드 카운티(Broward County)* 공공 의료 시스템인 브라워드 헬스(Broward Health) △남플로리다 대표 소아전문병원 니클라우스 아동병원(Nicklaus Children's Hospital) 등 다수의 병원이 외국인 환자 서비스 부서를 운영하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Caribbean Sea)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쌓아왔음
- *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부에 위치한 행정 구역으로, 마이애미(Miami)와 팜비치(Palm Beach) 사이에 위치함
- 또한, 마이애미 히트(Miami Heat)와 마이애미 돌핀스(Miami Dolphins) 등 프로 스포츠팀과 협력한 스포츠의학 분야의 강점과 크루즈 승객승무원 대상 의료서비스도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됨
-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①우선 진료 분야 정립 ②지역 외국인 환자 컨소시엄 구성 ③표준화된 환자 경험 제공 ④스포츠의학 브랜드 활용 ⑤크루즈 의료 파트너십 확대 등 5가지 실행 방안이 제시됨

[Florida Hospital News and Healthcare Report, 2026.07.01.]



21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원격진료 서비스 ‘버추얼 케어 N.B.’로 전환

-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는 6월 30일 기존 원격진료 서비스 ‘이비지트엔비(eVisitNB)’를 새로운 서비스 ‘버추얼 케어 N.B.(Virtual Care N.B.)’로 전환함
- 새 서비스는 ①신체 도표에서 통증 부위를 클릭하는 증상 확인 도구와 ②등록 간호사와 통화하는 ‘텔레-케어 811(Tele-Care 811)’ 두 가지 이용 방법 제공으로 △응급실 방문 △원격진료 예약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 등 적절한 진료 경로를 안내함
-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설
- 온라인 대기 방식이었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새로운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메디케어 카드(Medicare Card)**를 소지한 모든 뉴브런즈윅 주민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됨
- ** 캐나다 각 주(州)에서 발급하는 공공 의료보험 가입 확인증으로, 이를 소지하면 해당 주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Luxembourg) 소재 버추얼 케어 N.B. 운영업체인 파운데버(Foundever)는 현재까지 간호사 27명을 채용하였으며, 뉴브런즈윅 보건부 장관은 다양한 의료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 일부 전문가들은 원격진료가 주치의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함
- 보건부는 담당 의료진이 없는 주민이 처방전 갱신이 필요할 경우 약사를 찾거나 텔레-케어 811을 통한 예약으로 안내하며, 중증·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CBC News, 2026.07.03.;CTV News, 2026.07.09.]

22 UAE, 국가 통합 의료 데이터 플랫폼 ‘리아야티’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 시스템 구축

- 아랍에미리트(UAE)는 첨단 디지털 인프라와 AI 기술, 전국 단위의 통합 의료 데이터 교류 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를 국가 의료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UAE는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가 운영하는 국가 통합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리아야티(Riayati)’ 플랫폼을 도입해 전국 의료기관 간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류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있음
- 에미리트 보건서비스(Emirates Health Services, EHS)*는 EMR 및 임상운영 관리 시스템 ‘와리드(Wareed)’를 리아야티와 연동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 통합을 지원함
- * UAE 연방 보건 당국으로, UAE 전역의 공중보건 향상, 국립 의료기관 운영 및 보건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
- 지역 단위로는 아부다비(Abu Dhabi)의 ‘말라피(Malaffi)’, 두바이(Dubai)의 ‘나비드(NABIDH)’ 등 의료정보 교류 플랫폼이 리아야티와 연결되어 전국 단위의 상호연계된 EMR 네트워크를 형성함
- UAE는 △예약 △처방 관리 △병가 확인서 발급 △개인 진료 기록 열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전자화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대해 환자 편의성과 의료자원 활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음
- AI는 △의료영상 분석 △조기 질병 진단 △합병증 예측 등에 활용 및 정밀의료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디지털헬스 시스템은 「우리 UAE 2031(We the UAE 2031)**」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UAE가 향후 10년간 국가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22년 11월에 수립한 국가 발전 전략이자 로드맵



[Bio News Network.com. 2026.07.04.;Emirates 2417. 2026.07.04.]

23 태국·인도, 비자 제도·AI 진단·력셔리 회복 인프라를 앞세워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주도

- 태국과 인도가 △신속한 비자 제도 △AI 기반 의료 시스템 △력셔리 회복 인프라를 강점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등을 앞지르며 2026년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태국은 △방콕(Bangkok) △푸켓(Phuket) △치앙마이(Chiang Mai)의 국제 인증 병원과 장기체류 의료비자, 병원-리조트 연계 회복 관광을 결합해 통합형 웰니스 의료관광 강국으로 주목 받음
- 인도는 「힐 인 인디아(Heal in India)*」 정책을 통해 △델리(Delhi) △मुंबай(Mumbai) △첸나이(Chennai) 등 주요 도시에 의료관광 허브를 확대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심장수술 및 장기이식 등 고난도 시술을 제공하는 대형 병원 네트워크로 경쟁력을 확보함
- * 인도 정부가 자국을 글로벌 의료 및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 의료관광 이니셔티브
- 말레이시아는 할랄(Halal)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로 중동과 아세안(ASEAN) 시장을 공략하고, 싱가포르를 종양학 및 신경외과 등 첨단 정밀의료로 고소득 환자층을 유치함
- △대한민국은 미용과 성형 시술로 △일본은 로봇수술과 정밀의료로 각각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베트남과 필리핀은 치과 및 성형 등 저비용 특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비자 완화 △AI 기반 의료 시스템 확산 △력셔리 회복 인프라 결합이 아시아 의료관광 산업 전반의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Travel And Tour World, 2026.07.06.:Bangkok Post, 2026.07.09.]

24 홍콩, 제1회 홍콩 중의학·통합의학 글로벌 서밋 개최해 글로벌 의료 협력 확대

- 홍콩 보건국(Health Bureau)은 홍콩 중의학병원(The Chinese Medicine Hospital of Hong Kong, CMHHK) 주최로 '제1회 홍콩 중의학·통합의학 글로벌 서밋(Hong Kong Global Summit on Chinese Medicine and Integrative Medicine)'을 개최해 중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개최식에는 홍콩 보건국장을 비롯해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AE) 원사,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 CMHHK는 이번 서밋에서 상하이(Shanghai)와 허난성(Henan) 소재 중의학병원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①베이징(Beijing) ②상하이 ③허난성 ④광둥성(Guangdong) 포산(Foshan)의 4개 지역 병원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함
- 또한, 올해 12월 24시간 입원환자 서비스(24-Hour Inpatient Service) 개시를 앞두고 정부 보조 외래진료 정원을 네 차례에 걸쳐 확대했으며 이달부터 뇌졸중 후 관리 및 요통 관리 등 특화 질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홍콩형' 중서양의학 통합의료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 서밋에서는 '국제 약초-약물 상호작용 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 of Herb-Drug Interaction, ICHDI)'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호주 △독일 △한국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기관 대표들이 참여함
- 2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홍콩 △중국 본토 △글로벌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질환 임상 경험 △약초-약물 상호작용 △중의학 실습 △임상훈련 등을 주제로 발표함



[巴士的報, 2026.07.04.:CMHHK, 2026.07.04.]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AHRMM26 연례 컨퍼런스 & 전시회

AHRMM Conference & Exhibition 2026

개최도시 미국 샌안토니오

행사일정 2026.07.26.~2026.07.28.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결·혁신·발전을 위한 플랫폼

주요내용 미국병원협회(AHA) 산하 AHRMM이 주관하는 헬스케어 공급망 분야 북미 최대 연례행사로 1,250명 이상이 참가하며 ①소싱 ②테크놀로지 ③임상적 가치 분석 ④운영 관리 4개 트랙, 40개 이상의 세션 운영



제48차 IEEE 의학생명공학회 국제컨퍼런스

IEEE EMBC 2026

개최도시 캐나다 토론토

행사일정 2026.07.26.~2026.07.30.

행사주제 공학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의료

주요내용 8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의·산업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생체신호처리 △의료영상 △웨어러블 센서 △바이오로보틱스 △디지털헬스 등 11개 주제 트랙 운영



2026 병원 약국 바이어 컨퍼런스

2026 Hospital Pharmacy Buyer Conference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8.09.~2026.08.10.

행사주제 공급자와 바이어를 하나로

주요내용 △ACPE 인증 CE 크레딧 교육 세션 △네트워킹 △공급업체와의 1:1 매칭 방식인 바이어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원가 절감 △신제품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 병원 약국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



메디케이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즈 컨퍼런스 2026

Medicaid Enterprise Systems Conference 2026(MESC 2026)

개최도시 미국 포틀랜드

행사일정 2026.08.17.~2026.08.20.

행사주제 메디케이드 시스템 혁신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협력 플랫폼

주요내용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 부문 전문가가 모여 메디케이드 시스템 및 관련 보건 정책을 논의하며 △메디케이드 시스템 조달·운영·모듈화 △의료정보기술 (HIT) △진료정보교환(HIE) 등 주요 트랙 운영



엠디디바이스 보스턴 2026

MEDevice Boston 2026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8.26.~2026.08.27.

행사주제 대화에서 시작되는 메드테크 혁신

주요내용 미국 동부 최대 의료기기 혁신 엑스포로, 17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제품 발굴 △파트너십 △AI △규제 트렌드 등을 다루는 메드테크 전문 행사